

코로나19 '군산 유입 안된다'

군산시장, 브리핑 통해 시민 방역철저 당부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강원군 군산시장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200명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 모두 20대로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우려했다.



특히 방학과 휴가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여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시민의 수도권 방문과 내방 자제를 요구했다.

관내 기업체에서도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의 출장 대신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함께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유통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주점 등 업체들에도 에어컨 사용으로 김영환(?)이 더욱 우려된다며 주기적 환기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 환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7월 8일부터 김영환(?)에 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위반 시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주)하림은 7일 전주KBS, 사랑의 열매,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주시·진안군에 사랑의 삼계탕 세트를 전달했다.

하림, 건강한 여름 삼계탕 지원

전주KBS·사랑의 열매·현대자동차와 전주시·진안군에 전달

(주)하림은 7일 전주KBS, 사랑의 열매,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주시·진안군에 사랑의 삼계탕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북지역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삼계탕 세트는 지자체 관계자와 적십자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 할 예정이다.

전달된 하림 삼계탕은 당일 도계

한 닭고기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끓는 물에 제품 그대로 넣어 데우면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림 관계자는 "정마와 무더위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9일부터 개장

군산시는 9일부터 오는 8월 16일 까지 39일간 선유도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백신 예방접종의 가속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시는 최근, 렐타 변이 발생으로 지역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민족 생활 속거리두기 지침 및 해수부 해수욕장 대응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최소화하고 해수욕장 전역(1.2km)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안심콜, QR마크, 체온스티커 등을 도입, 비대면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에 있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법텐트 설치 및 앙금지 등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명령을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과 청결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소독 및 환기 등 주변 상가들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장기간 중 주기적으로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김관기 행안부 양양군수는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탐방센터에서 마스크(면탈, KF94)도 판매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출산·양육 혜택

맞춤형 보육정책

익산시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난임 부부 헌방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용품 구입비도 첫째아부터 적용해 자급한다.

출산장려금에는 최대 15일 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에서 소득 기준 조건 없이 지역에 6개 월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 등재 신고하면서 익산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됨 된다.

온·오프라인 새만금

JOB콘서트 개최

군산시는 '2021 온·오프라인 새만금 JOB콘서트'가 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오후 1시30분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채용시장 활성화와 고용 분위기 전환을 위해 철저한 통합 방역 속에서 현장 참가자 100명과 온라인 참여자 1,000여 명이 참가해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 (주)하림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당사의 채용절차와 정보를 소개하며, 취업특강에서는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취업 전략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참가 시 가능한 체험을 통한 모의 면접 체험,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취업 증명사진 활용,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2021 온·오프라인 새만금 JOB콘서트 참가를 원하는 경우 GSCO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매각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를 일반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주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단경강·봉황산 등 자연 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폐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28회지(기구)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며 매각 비용은 총 20억원이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부지면적 15,079.5㎡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다. 매각 예정가격은 1회지당 6천88만5천원 ~ 8천5백95만2천원으로 면적은 451㎡ ~ 632㎡이며, 매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개찰일은 27일이다.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명화인 절차로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호원대학교, 구암교역이 있고 녹지공간 조성으로 폐적한 주거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토지구입자금 등 금융지원도 가능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임주민들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